

성인지적 관점의 지역사회 여성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 현황과 역량강화기반 정보화교육 지원 방안

최선경*

Current status of digital information gap for women with disabilities from a gender-conscious perspective and ways to support informatization education based on empowerment

Sun-kyoung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illa University, Busan, 47227 Korea

요 약

본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보화교육 지원방안을 고찰하였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2018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디지털정보격차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둘째, 여성장애인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지원 관련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지원 현황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유형을 고려한 방문교육,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개발 및 지원, 정보화 관련 지역사회 자원발굴 등 지역사회 중심의 역량강화 기반 여성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ommunity-centered informatization education support measures for empower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based on gender perspective. First, the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used the 2018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the digital information gap between male and female handicapped people. The law on information education support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s presented. Lastly,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zation education support available to women with disabilities, centered on local communities, such a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women's disability support center, visiting education considering disability types, developing and supporting customized informatization education considering learning ability, and discovering community resources related to informatiz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plan to support informatization education for women with disabilities based on capacity building.

키워드 : 성인지적 관점, 여성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 역량강화, 정보화 교육

Keywords : Gender Perspective, Women with Disabilities, Digital Information Gap, Empowerment, Informatization Education

Received 4 November 2019, Revised 16 November 2019, Accepted 3 December 2019

* Corresponding Author Sun-kyoung Choi (E-mail: sun@silla.ac.kr, Tel: +82-51-999-5410)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illa University, Busan, 46958 Korea

본 연구는 제 46회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 추계종합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여성장애인의 디지털정보접근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정보화교육 지원방안」을 수정보완하여 게재함을 밝힙니다.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20.24.5.655>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I. 서 론

정보격차(Digital Divide)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계층, 성별, 연령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며, 정보지식기술 확산에 따라 그 의미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1]. 최근 들어 초고속 무선 인터넷 환경기반의 스마트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우리 사회는 정보격차에 있어서 좀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스마트 환경은 기존의 전송수단을 뛰어 넘는 초고속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폰/스마트 패드, PC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 특징이다[2].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소외계층에서는 이전의 PC 및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 경험했던 정보격차와는 다른 양상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2].

결국 정보소외계층이 형성되는 것인데, 정보소외계층이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계층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장·노년, 저소득, 농어민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격차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는 장애의 특성상 새 기술의 존재나 장점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비장애인에 비해 어렵다기 때문에[3], 벌어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계층과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둘째는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디지털 정보 역량 및 활용 수준이 낮은 장애인 계층은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대상은 장애인계층 안에서도 여성장애인이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여성 장애인은 생활전반에 걸쳐 더욱 열악한 현실이라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다. 다만, 장애인복지 안에서도 정보적 접근권에 관한 주제를 논하는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러한 가운데 여성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남성장애인과 또 다른 차원에서 정보접근권의 구체적 주제로서 디지털접근권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여성장애인의 정보접근권으로서 정보격차의 논의를 남성장애인과 비교하여 정보화교육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2018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디지털정보격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둘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여성장애인 대상의 정책 중 정보화교육지원과 관련 될 수 있는 법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가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2.1. 여성 장애인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빈곤’이라는 다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은 모든 장애인들이 정보습득과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3],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제공되지 않고 있을뿐더러[4], 성인지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문제 접근의 부족은 열악한 여성장애인 삶의 전반 부분을 더 열악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여성장애인의 정보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신기술의 혜택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간격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양극화를 확대·양산 시킨다는 데 있다[5]. 마찬가지로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정보접근, 정보소유, 정보활용 등의 역효과로서의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에 주목해왔다[6-8].

같은 맥락에서 여성장애인의 정보격차는 사회적 불평등, 배제와 직접적 맞닿아 있다. 한편, 여성장애인의 정보격차에 따른 사회적 배제는 교육 수준과도 관련되

는데,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36.5%), 고등학교(20.5%), 무학(19.1%) 순으로 나타났다. 무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학력은 55.6%인데, 이는 남성 장애인의 24.5%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은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음을 의미한다[9]. 이는 곧 자립기반이 일정 수준의 학력과 또는 충분한 교육이 밑바탕 되어야 함을 가정할 때 디지털 정보교육은 그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다.

2.2. 여성장애인 정보격차 현황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이란 젠더를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이 지니고 있는 이해와 요구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특정성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고정된 성역할을 담보로 하고 있지 않는지를 검토하는데 유용한 관점이다.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며 정책이나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성별(gender)을 주요 변수나 기준으로 삼으면서 정책과 프로그램이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10].

여성장애인은 교육, 결혼, 취업 등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는 실제로 객관적인 지표로도 확인되는데[11],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정보격차는 철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는 57.3%로 이는 일반 국민 보유율 80.3%에 훨씬 못 미치는 23.0%로 조사되었다. 남성장애인은 61.0%, 여성장애인은 49.7%로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바일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기타주변기기 중 하나) 보유율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국민이 89.7%를 보유하는데 비해 장애인은 76.1%를 차지하였고, 이 중 남성장애인은 77.1%, 여성장애인은 74.0%로 조사되어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모바일스마트기기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이용률 부분에서는 장애인계층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장애인가구의 82.1%가 가구내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을 사용

하여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장애인이 83.6%인데 비해 여성장애인은 79.1%로 조사되었다.

이어, PC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활동들(타인과 교류/협력, 다양한 활동에 참여, 인터넷 위험요인 방어)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성장애인보다 남성의 이용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보 및 뉴스검색, 미디어콘텐츠, 이메일, 교육 콘텐츠와 같은 검색 및 서비스 이용률을 묻는 질문에도 4개 항목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여성장애인의 각 항목별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함을 볼 때 심각한 여성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2011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와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인터넷 이용률,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컴퓨터 보유률의 남성과 여성 차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여성장애인의 67.1%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3.6%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컴퓨터는 19.0%, 인터넷은 18.7%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남성장애인에 비해 절반 이하의 사용정도를 보여 여성장애인의 정보통신 기기 사용의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율은 남성이 83.6%, 여성이 73.2%이고 전체 국민의 컴퓨터 보유율이 81.9%, 스마트폰 보유율도 39.6%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었다 [12].

Ⅲ. 여성장애인 디지털정보교육지원 관련 법적 근거

여성장애인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교육 관련 법적 근거와 관련될 수 있는 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Table. 1 Legal basis for digital information education support for women with disabilities

depart	Legal Name & Key Conten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u>Disability Welfare Ac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o expand their social participatio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basic learning and vocational education. <Article 7> •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ake necessary measures. <Article 9> • Clearly provide rehabilitation and independence support services by type of disability and disability <Article 7>
	<p><u>Act on the Prohibition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ights Remedie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depriv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all areas of life<Article 33> • Mandatory provision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Article 34>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u>Special Education Act for the Disabled</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ort for lifelong education courses for the disabled for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Article 33> • Establishment of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hich do not receiv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have passed school age <Article 34>

첫째, 보건복지부의 주관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의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7조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 역시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을 제시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근거로서 디지털정보교육이 학습 및 직업 교육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3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박탈 금지, 여성장애인 근로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바, “모든 생활영역” 즉, 디지털 정보활용을 통한 일상 생활 영역에서 정보격차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제 34조의 여성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 주관의 양성평등 기본법 제 33조는 여성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남성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디지털 정보격차가 더 낮게 조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에 적합한 여성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책이 제시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1조는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과 제 35조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의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정보화교육지원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 법령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근거로 보면, 제 33조는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 34조는 초중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바, 장애인평생교육과정에 디지털 정보교육과정을 지원해야 함을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IV.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지원현황

여성장애인의 역량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욕구가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다[12]. 특히 서비스 욕구 분석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및 사업수행절차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전략에 핵심적인 사안이다[13-14]. 그러나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지원정책은 여성장애인만의 생애주기를 고려했다기 보다는 남녀 모두의 동질적인 차원에서 동질적인 특성을 전제로 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기초교육중심형, 건강중심형, 사회활동중심형, 여가문화중심형, 경제활동중심형으로 정보화교육과 관련한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은 기초교육중심형에 해당되며 컴퓨터교육이 대표적 예에 해당된다[15]. 이는 표 2와 같다.

Table. 2 Program for empower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example)

division	Contents	example
Empowerment	Basic education	Examination, computer education, Hangul literacy education
	Health-oriented type	Table tennis class, health education class, oral promotion support project, etc.
	Social Activities	Women-Friendly City Development Project, Women's Disabled Leadership Improvement Academy, etc.
	Leisure Culture	Hanji Craft, Folk Song Class, Calligraphy Class, etc.
	Economic activity center type	Bakery Qualification Class, Barista Course, Fostering Counselors

<Sourc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Women's Disabled Support Program p.19

문제는 여성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컴퓨터교육의 구체성과 체계성을 제시하지 못함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 현황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지원 사업이고 또 하나는 사단법인 성격의 장애인협회, 나머지 하나는 지자체별 지역사회 복지 사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첫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현재 국가정보화기본법 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35조(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시행 등)를 근거로 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정보화교육 사업이란 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IT에 소질이 있는 장애인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복지제도이다[12]. 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 방문교육, 정보화도우미로 나누어진다. 집합교육은 전국의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등 정보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말한다. 방문교육은 방문정보화강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1회 3시간씩 주 3회(총20회)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보화도우미는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1인당 반기별 2회, 연 4회 지원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장애인정보화 협회는 장애인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장애인 정보화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윈도우, 파워포인트 작성, 한글문서 작성, 스마트폰 교육으로 진행된다. 2019년 전국적으로 현재 44개의 교육장이 운영되고 있다.

셋째, 시청 및 구청에서 안내하는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은 지자체 내의 프로그램으로서,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기초교육 중심으로 컴퓨터 기초, 윈도우활용, 인터넷 활용 등을 교육하며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과 같이 중급 과정을 교육하기도 한다. 지자체 별 시청과 구청은 관 주체로 교육을 실시하며 이외에도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 등의 정보화교육 사업을 소개하고 안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국의 시청에서 각각 시민정보화 교육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관리하여 지자체 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기관 자체 내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후원으로 집합 정보화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Table. 3 Status of Digital Information Education Support for Women with Disabilities

Department	Person with a disability information education support contents	Training method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 Collective training using 147 information educ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visiting training for the severely disabled, IT specialized training, etc. *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special education textbooks and online education contents for each type of disability for the hearing-impaired.	Collective training, visiting training, and dispatching informatization assistant.
-Korea Disabled Information Society	* Windows, PowerPoint, Hangul document creation, etc. * Program operation by branch, free course Branch training	Branch training
Local government City Hall and Ward Office (Local program)	* Preferred courses for applicants for education, including computer basics, Internet use, and document preparation *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living in each region However, the Internet-capable PC	24 hours per person (2-3 hours per visit)
Disabled Welfare Center (Local program example)	* Education based on the type of disability (e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ducation in welfare center

Department	Person with a disability information education support contents	Training method
Independence Living Center (example of local program)	* PC operation (Elementary), OA operation (Intermediate), Coding (Intermediate), Mobile (SNS Smartphone)	Operation by each regional center

한편,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 교육개선 연구(2018)의 조사를 살펴보면[15], 정보화 교육 수강경로는 주위 사람의 권유가 4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복지시설이나 복지관 안내 자료가 35.9%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보화 교육을 수강하는 목적으로는 자료와 정보 획득(38.6%), 취미·여가활동(21.9%),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준비(2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해 볼 때 여성장애인 정보화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의 접근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정보화 교육사업을 개선·보완하여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론: 지역사회 중심 정보화교육 지원방안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접근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갖추기 위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8년 12월 수립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년)’은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극대화 하고 지능화 혁신의 편익을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국가정보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1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 문제는 성인지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즉,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15], 여성장애인은 일반 국민, 남성장애인에 비해 정보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여성장애인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보화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제공이 가장 현실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디지털정보화교육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디지털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의 수준에서 장애유형별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센터내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정보화교육지원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평생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정보화교육 로드맵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4],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방문교육을 확대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교육을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성장애인은 앞서 정보화격차 현황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보화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며 인터넷 활용 및 기초 문서 작성 등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 집단교육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지도가 가능한 방문교육이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초교육이 기본적으로 제공된 후 집단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에 있어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셋째, 장애유형 및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은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학습능력 역시 정보화교육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단순히 장애유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학습경험과 학력 등은 정보화교육접근의 효과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장애유형에 맞는 정보화교육 개발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학습능력에 따른 진도 개발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연계 가능 지역사회자원 발굴해야 한다. 거주지역의 지역성에 근거한 접근방법은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실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가장 현실적인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이외에 다양한 지역사회 장소에서 여성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장애인 복지관 역시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화교육의 차별화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직업재활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지원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자립적으로

기존의 정보화 서비스를 재조직하고 부족한 부분을 모색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중심 역량강화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Y. Min, Internet usage and information gap,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Vol.48, No.1, pp. 150-187, 2011.
- [2] Smartphone, handicapped[Internet] Available: <http://hani.co.kr>, "Smartphone, handicapped eyes and ears role 'pretend' ... The problem is the information gap
- [3] Digital Divide[Internet] Available: <https://www.kihasa.re.kr>, The Digital Divide and Challenges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 [4] H. J.Suh, M. S. Jang, "A Study on the Bill of Wom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 Based on Analyses on the National Law Related to Women with Disabilities", *Korean Academy of Feminist Jurisprudence*, Vol,10, No.2, pp. 1-34. 2019.
- [5] H. J. Seo, "Critical Discussion for Digital Divide Research",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4, No11, pp 657-666, 2015.
- [6] E. J. Kim, "A Study 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Bridging the Generation Gap Across the Digital Divid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Vol. 11, No. 2, pp. 195-219. 2007.
- [7] H. S. Lee, S. H. Lee, Y. H. Jung, "A Study on the Digital Information Level and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Level of Disabled Pers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3, pp. 43-48, 2020.
- [8] H. S. Lee, S. H.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on Level and Policy Activity Satisfaction Level of Disabled Pers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4, pp. 23-28, 2018.
- [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Survey on Disability
- [10] S, H. Kim, Women with Disabilities: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Health and Welfare Forum*, 2008.
- [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udy on Development of Supporting Project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2015.
-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eonbuk National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Research for Development of Support Polic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2015.
- [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 Study on Development of Supporting Project for Women's Disability Enhancement, 2015.
- [14] Gyeonggi Welfare Foundation, Gyeonggi-do, Paralympic Information Education, Improving Education for the Disabled-Focusing on Education Operation Status, 2016.
- [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s Women with abilities, 2019



최선경(Sun-Kyoung, Choi)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 박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